

민주연구원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 불평등 감소와 고용창출효과' 보고서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11월 25일(화),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 불평등감소와 고용창출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기본서비스는 새정부 핵심 정책인 진짜성장과 기본 사회의 전제조건”이라며, “기본서비스는 단순히 복지나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기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기본서비스 정책의 불평등 감소와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보고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기본서비스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불평등 감소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첫째, 지니계수는 현 0.34에서 0.33~0.32까지, 소득 5분위 배율(P80/P20)은 현 4.5에서 4.1~4.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10~15년에 걸친 불평등 개선효과, 한국의 10년(2009~2019년)에 걸친 불평등 감소 효과 혹은 그 두 배와 비슷하다.
 - 둘째,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해 절감되는 가구 지출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68.9~104.1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81.6~130.7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셋째, 기본서비스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려면 새정부 국정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동시에 외부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국정과제가 확대, 고도화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의 구축이 곧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달성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덧붙였다.